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2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10월 6일 (제710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칼럼

악점과 결점은 다르다

세상에 가장 악비한 사람은 남의 악점을 잡고 늘어지는 놈들이다. 외국 근로자들이 비자가 만료된 것을 알고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사업주들이 그런 경우다.

악점은 뭔가 뾰뚱하지 못하여 약간 뒤가 구림을 뜻한다. 고로 악점을 가진 자가 당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뒷덜미를 잡는 자는 더욱 비열한 자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거미와 같은 존재다. 거미줄을 쳐놓고 음식에서 기다렸다가 약한 벌레가 걸리면 곧 잡아먹는 거미 같은 자들이다. 마귀는 이 수법에 도가 났다. 그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은 것을 빌미로 우리를 울무에 넣고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치라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 유도선수인 왕기춘 선수, 그가 결승전에서 만난 일본 선수는 발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승부의 세계에서 이 악점은 확실한 공격 포인트였다. 그러나 왕 선수는 상대의 부상당한 곳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일격을 당해 패배하여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그는 진정한 승리자였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19:11).

그런데 가끔 사람의 결점을 잡고, 그것으로 울무에 씌우려는 자들을 본다. 그러나 그들은 악점과 결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결점은 온전하지 못한 점을 말하는 것으로, 악점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남의 결점을 이용하려고 하면 자신도 결국 결점으로 뒷덜미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바라(마7:3).

협력으로 갈 것인가, 대립으로 갈 것인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은 보우(保佑)하시라 우리나라 만세 십자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지난 10월 1일, 잠실실내체육관에 울려 퍼진 애국가를 시작으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성회’가 시작되었다. 오직 대한민국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한 소망으로 2만여 명의 성도들은 뜨거웠다.

등단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협력으로 갈 것인가. 대립으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설교하셨다.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사과 육질은 썩지만 사과씨를 심으면 다시 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세상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병과 가난과 고통이 없는 천국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두려움에 가득한 지옥을 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협력이나 대립이나입니다. 요즘 여야가, 남북이, 노사가, 부부간에 대립되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협력은 성장과 행복이지만, 대립은 멸망

은 평화와 번영의 나라를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 여유 있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됩시다. 그래서 대결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을 포용합시다. 아무리 사나운 개도 예뻐하면 꼬리를 내리는 법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벧전4:8). 사랑은 오래 참고,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성회(2013년 10월 1일, 잠실실내체육관)

“저는 오늘 두 가지 선택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먼저는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어리석은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맛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어보면 맛을 압니다. 전선에 전투가 흐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전기를 쫓아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삼라만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분명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분은 또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존체로, 육

과 불행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17:14). 여야가 매일 싸우면 국가의 미래가 없고, 남북이 대립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고, 부부가 매일 싸우면 법원 갈 날 잡은 것이고, 노사가 대결하면 회사 문 닫을 날 받아놓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많은 순국자들과 순교자들의 피땀으로 일군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도 화려강산, 금수강산, 부강한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끝장을 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고전13:4).

협력하여 성장과 행복을 얻을 것인가, 대결하여 멸망과 불행을 얻을 것인가? 이것 역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정치자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만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요, 국가의 앞날을 위하는 자며, 국가를 지키는 자임을 알고, 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국가 없는 민족은 국가 있는 개보다 못하기 때문이며, 국가 없이는 신앙도 없기 때문이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협력으로 갈 것인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2만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나라이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8:29)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라

주위에 보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매가 알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결코 안 환자가 받는 고통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치매는 정신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참하다는 생각입니다.

치매 걸린 자들의 초기증상을 보면, 일단은 기억력 감퇴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한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방향감각 상실 증세가 나타납니다.

정말이지 치매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영적치매에 걸린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동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뽕뽕이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 말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상이 흉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맥을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 혹자들이 그랬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원죄가 사함 받았으니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치매에 걸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

죄를 사하셨습니다(롬5:8). 원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흘린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죄를 사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요5:24). 그러나 자범죄(Actual Sin)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입니다. 즉 불의, 추악, 시기, 살인, 분쟁, 시기, 마음 등 무수히 짓는 죄를 말합니다(롬1:28-31).

물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끔히 청산되었습니다(사

묵부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아갈 때가 되었을 즈음, 시어머니의 입을 열었습니다. “아야, 꼭 짜서 탈탈 털어라.”

꼭 짜서 탈탈 털면 뽕뽕하게 되는 것은 광목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원죄는 없애주셨지만, 매일 짓는 죄, 곧 자범죄는 매일 탈탈 털어 회개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탈탈 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가 사함 받아 흰 눈보다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대충 회개하면 머느리



가 빨래를 꼭 짜지 않고, 탈탈 털지 않았기에 광목이 누렇게 되었듯이,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 변색,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이것이 복음(福音)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원죄를 사함 받았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하러 교회에 다니고, 몇 하러 주를 위해 살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치매에 걸려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철두철미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의도된 질문이었습니까. 그들은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로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지도 모르는 자들임

최후를 영적 건강에서 온다

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마16:6). 타인에게 강한 정신적 전염을 시키는 것을 누룩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을 따라가면 같이 영적 치매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불쌍한 자 아니겠습니까(고전15:12-19)?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로 삼고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한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성경 그대로를 먹으면 됩니다. 괜히 신학 공부한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주의 종이 주는 말씀만 먹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를 위해 땀 흘리십시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늘 모이기에 힘쓰면 절대 영적 치매 파인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건강에 나쁜 것을 배제해야 합니다. 영적 건강에 나쁜 것들, 세속적인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건강은 올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육적인 치매야 죽으면 끝이 나지만, 영적 치매는 영멸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관리 잘 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은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기에(창5:3),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그의 자손, 즉 모든 인류에게 흘러내렸었습니다. 사과에서 얻은 씨를 심어서 다시 거둔 사과가 똑같고, 거기서 얻은 사과씨를 심어도 똑같은 사과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5:12).

이것이 바로 원죄(Original Sin)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이 죄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51:5).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53:5).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죄를 없애고, 탈탈 털지 않았기에 광목이 누렇게 되었듯이,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 변색,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이것이 복음(福音)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원죄를 사함 받았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하러 교회에 다니고, 몇 하러 주를 위해 살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치매에 걸려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항상 기뻐하라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런 시험들이 성도 간에도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왜 그럴까?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신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나는 이에 대한 아주 확실한 경험을 갖고 있다. 무엇에 홀리듯 교회에 직원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채 못 되었을 때의 일이다.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에 대한 회의, 교회에 대한 실망, 내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인간적인 생각에 목사님에 대한 불만도 쌓여가기 시작한 것 같다. 이래저래 구단을 내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해갈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사람도 없었다. 내가 질문해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것은 내가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앙생활 초기에 접한 어느 책 서문에서 본 것이 나도 모르게 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억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떠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자!” 모처럼 얻은 구정 이틀의 휴가에 가족끼리 모여야 했지만, 어머니와 형님의 허락을 득하고 산으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산 속에 위치한 금식 기도원이었다. 도착하자

마자 예배가 있어 참석했는데, 강사로 오신 모 전도사님의 메시지가 다짜고짜 “교회를 사수하라!”였다. 물어보고 자시고 할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좀 실망스러운 응답이긴 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 믿고 이를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남을 느꼈다.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 순간 목사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옆에 계셨다면 부둥켜안고 키스세례라도 퍼부었을 것이다. 내 성격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실감 있게 다가왔다. 나는 그 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 그 문제에 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리고 내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싹을 때,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가 부족하여 생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속에 싹트는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런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면, 단적으로 기도의 부족이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ABC가 있다. 성도라면 누구나 외출 만큼 알고 있는 말씀이다. 다 같이 큰소리로 외치며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봅시다 가하지 않을까?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내 것을 찾자

술개는 원래 지금과는 다른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백조처럼 아주 높고 날카로운 소리를 가지고 있어 모두들 술개의 소리에 감탄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술개는 말이 우는 소리를 듣고 우렁찬 것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날부터 말이 우는 소리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 매일 말 우는 소리를 내려고 목을 썼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술개가 아무리 흉내를 내고 노력을 해도 말의 울음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술개는 자기 원래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의 울음소리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되었다.

왜 그런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집 잔디가 푸르려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항상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남이 가진 것은 남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이 내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는 법은 내 것

에 감사하고, 내 것에 만족하고, 내 것을 갖고 닦아 빛나게 하는 것이다.

감람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고, 고양이가 밤이 될 수 없음은 알면서 왜 내가 남이 될 수 없음은 모르는지 모르겠다. 왜 장독이 커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큰 장독은 주인의 얼굴을 잊을 만한 때에 한 번씩 보지만, 작은 종지는 매일 주인의 밥상을 본다.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멋지기는 하지만, 참새 떼 속에서의 기쁨을 모른다. 그러니 남의 것을 부러워말자.

탕자도 꿀을 부러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남을 부러워해서야 되겠는가.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짚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2:20-21).

예수중심편집실



::Healing in Music::



귀를 기울이세요

영원히 배부른 음식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찬양가사 같이 낯설지 않은 내용의 이 가사는 최근에 발표된 한 가수의 신곡 가사이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번 앨범을 만들게 된 배경을 소개하면서 가수는 가질 만큼 가져보았고 놀만큼 놀아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 뉴욕에서 이제 막 새 학기에 접어들어 한국의 사정을 그때 그때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이 방송의 편지 본을 보고 나서는 마음에서 그 가수의 말이 지워지지 않아 계속 관련 검색어들을 찾아다녔다. 새 앨범은 며칠 전에 발표된 것이었고, 가수는 바로 이 영혼의 문제가 앨범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 출연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자신은 종교를 찾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그분’을 찾고 싶은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 그가 1년 후에 들고 나온 앨범에서 삶의 목적, 진리에 대한 갈구를 말하고 있다. 열심히 살아오던 어느 날 ‘내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정말 이렇게 그냥 살다 죽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떠난 이스라엘 여행에서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생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고 말할 만큼의 변화를 얻어 왔다.

그러나 그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눈물을 흘린 부분은 이 대목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무게가 험해워 하루하루 살아나기에 바쁘고, 일부는 가수처럼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찾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다.

내가 있는 뉴욕은 소비행위로 들끓는 곳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문화, 상품, 삶을 소비한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사고 또 산다. 그것이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게 일어나고 있는 이 도시에 한 사람에게 내어드릴 자리는 없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전하는 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있을 것이다. “깨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 줘”라는 가사로 감동한 심령을 드러내는 가수를, 또 미처 감동조차 하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들이 진정 영원히 배부른 영의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주의 컬럼비안 고등학교에서 교내 불량 씨름 소속의 두 남학생이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총기로 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미주치는 사람마다 머리에 총구를 대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소녀는 총구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그러자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라며 그녀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 십대들 사이에선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났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마약과 술에 저들어 살던 2,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지난 과거를 회개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 불리는 캐시 버널(Cassie Bernall)입니다.

사실 그녀는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약과 주술, 광기에 빠져 살던 불량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친구를 따라 갔던 한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누구든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신재성 전도사

blessedmc@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공든 탑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방법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끝이다.” 항상 예의 바르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내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어렸을 적에는 그 단 한 번의 잘못은 100번의 친절로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결국, 부모님의 말씀이 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내가 짙어진 의수가 비단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나는 부모님 앞에서 ‘평~’ 하고 터져버렸다.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의 말대답도 없었고, 언성을 높인 적도 없었던 내가 부모님께 대들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말았다. 나의 모습에 부모님은 충격을 빠지셨고, 큰 실망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긴 시간 나는 대화로 나의 마음은 평강을 찾았지만, 단 한 번 보여드렸던 나의 모습에 부모님은 오랫동안 가슴이 아팠다고 하셨다. 그 날 이후로 난 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갠 그릇과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가 없었다. 단 한 번의 잘못이 부모님께 아주 큰 상처로 흔적을 남게 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흐른 물은 마를 것이다. 하지만 그 날의 그 사건이 없어지진 않는다.

성경 속 인물인 가인도 마찬가지였다(창 4:5-8). 분노를 참지 못했던 가인은 하나 뿐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가인이 그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분노는 공든 탑을 단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 것을 누차 이야기하셨다. 잠언을 통해 ‘미련한 자의 분노가 돌보다 무겁다’(잠27:3)는 비유를 알려 주셨고, 그 밖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엢4:26-27)시며, 그 날의 화는 그 날의 해를 넘기지 말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롬12:19) 말씀

하셨다.

공든 탑을 다시 쌓는 것. 어쩌면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무너지면서 생긴 흔적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조건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서 받은 분노와 관련된 것이다.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와 절제’(갈5:22-23).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갑수목 삭막해지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분을 참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행여나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 또 다시 화가 나는 상황이 닥친다면 부모님의 사했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동안 쌓아 온 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전준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참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죄를 범하여 그 낙원에서 쫓겨났으며,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자

신의 의지나 노력을 통하여 얻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서로 다를 뿐이지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길은 막힌 길이요, 끝난 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범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은 죄악의 사슬에 결박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기에 사탄의 권세를 떨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을 통하여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행4:12).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요14:6).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으로 인도할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을 향한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I

종합비타민제, 칼슘제, 오메가-3, 글루코사민까지 영양제라면 한 번씩은 먹어 보았을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먹기보다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보조제가 되지만 아무런 기준과 상식 없이 섭취하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요즘 가장 각광을 받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없애거나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으로 식물에서 추출되는 알파리놀렌산(ALA)과 동물에서 나오는 EPA와 DHA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효과로는 혈중

중성지방 개선 및 혈액 개선 효과입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좋은 사람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이 있거나 맥박이 평소에 불안정한 분입니다. 따라서 심근경색증 환자나 중풍을 앓았거나 비슷한 위험요인을 가진 이들이 아스피린과 비슷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메가-3가 떨어진심장사를 줄인다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심박동 안정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상인은 안 먹어도 되고 생선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혈소판 감소증상으로 피가 잘 안 멈추고 멍이 잘 들거나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 수술을 앞둔 환자는 지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으로는 기름진 생선인 다랑어, 고등어, 정어리, 연어, 전어, 꽁치, 아귀, 뱀장어 등에 많이 들어 있고, 식물로는 호두, 대두, 아마씨, 유채씨, 들기름, 아욱, 시금치, 호박, 양배추, 고춧잎, 마늘종, 강낭콩 등에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심장학회 권고안을 살펴보면 정상인은 일주일에 두 번 등 푸른 생선을 먹고 리놀렌산이 들어있는 견과류와 오일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는 1g의 EPA, DHA 보충제를 하루 한 알 먹으라고 하며,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자 하는 사람은 2~4g의 보충제를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관절에 좋다고 하는 글루코사민, 노화 예방제인 코엔자임Q10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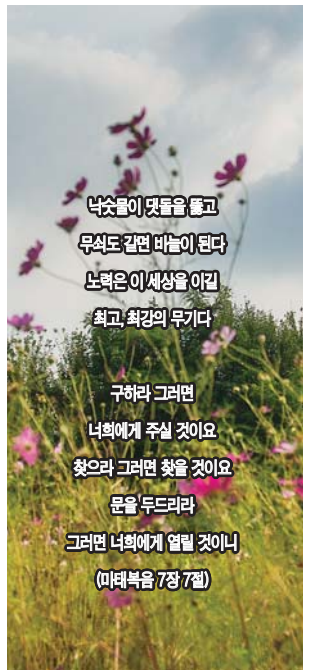
Q: 성경을 읽다보니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절을 본적이 있는데 이자를 받는 것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

A: 출애굽기 2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채주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들 속에 영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자라는 말의 어원 ‘라시(rashi)’는 물어뜯는다는 뜻인데, 마치 뱀이 무는 것과 같아서 물렸을 때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부어올라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처럼, 과도한 이자는 돈을 빌린 자들을 반드시 파멸으로 이끌어가고야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이자 받는 행위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27절과 누가복음 19장 23절에는 사업을 위하여 빌려주거나 은행에 맡겼을 때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에게 동정적이고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리의 이자를 받아 이웃의 재산을 이용해서 쉽게 불법적인 이윤을 취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28장 8절에는 중한 번리로 일시적으로 재산이 증식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선행을 베푸는 의로운 자들에게 돌아가고 만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낙숫물이 땀들을 흘리고
무식도 길면 비늘이 된다
노력은 이 세상을 이길
최고 최강의 무기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